

## “國家목표달성에 과학기술인 全力을”

李會昌총리, 科總주최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서 당부  
관련부처장관·국회의원·과학기술계인사 등 5백여명 참석



◇과총이 1월7일 세종문화회관세종홀에서 개최한 94과학기술인신년인사회에는 과학기술계인사 5백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으나 사진은 李會昌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월7일 하오 5시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李會昌 국무총리를 초청, 1994년도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閔寬植 명예회장, 金東一 상임고문, 金始中 과기처장관, 金淑喜 교육부장관, 尹東潤 체신부장관, 朴鉉新 환경처장관 등 관계인사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신년 인사회는 李傑三 사무차장의 사회로 成樂正 회장의 개회인사, 李會昌 국무총리의 인사가 있은 다음 鄭勛英 상임부회장의 주요인사 소개, 金始中 과기처장관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무궁한 발전과 과학기술인의 단합을 기원하는 건배제의 순으로 진행됐다.

成樂正 과총회장은 이날 개회인사를 통해 『올해는 지난해에 역사적 출범을 한 새문명정부의 「신한국」 건설의지가 새로운 날개를 펼치는 역사적인 해』라고 지적하고 『모든 과학기술인들은 새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은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배양에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크나큰 소명의식을 확

고히 다지고 2천년대 선진국 진입이라는 가치아래 새로운 도약과 단합을 기약해 나가자』고 강조한다.

이어서 李會昌 국무총리는 『새해는 우리 모두가 세계적인 국제화와 개방화의 물결속에서 국가경쟁력강화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부도 올해 한정된 재원과 인

력을 승산있는 기술분야에 집중투입하여 독자적인 우리만의 고유기술을 개발, 확보함으로써 2천년까지 특정기술분야에 선진국수준에 진입코자 하는 국가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李총리는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민간기업주도의 산업기술 혁신체제를 확립하고 수요지향적 기술개발체제를 강화하며 산·학·연의 경쟁과 협동에 의한 생산적인 연구개발체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金塚謙 李明博 李哲 趙世衡 의원 등 국회경과위 소속의원 다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李祥義 위원장을 비롯한 蔡永福 河斗鳳 씨 등 자문위원 전원, 韓榮成 차관을 비롯 張洙瑛 기획관리실장 등 과기처관계관, 李漢彬 전부총리, 權錫赫 金基衡 金鎮炫 朴育植 安京模 李正五 趙完圭 鄭根謨 崔順達 崔鍾浣 씨 등 전직장관, 朴泰源 인하대 명예총장 宋梓연 세대총장 金殷泳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千性淳 한국과학기술원장 姜信浩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등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대표 및 과총산하 회원단체장들이 참석했다.

## UR대비 農業기술 집중개발

### 科技處 업무보고, 新素材 등 源泉기술개발도

과학기술처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력을 21세기초에는 선진 7개국 수준으로 진입시킨다는 목표아래 올해에 ▲첨단원천기술의 전략적개발 ▲기초과학육성 및 고급과학기술 인력양성 ▲UR에 대비한 연구개발 지원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 ▲원자력기술 자립 ▲과학기술의 혁신기반 확충 등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金始中 과기처장관은 1월11일 청와대에서 金泳三 대통령에게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UR에 대응하기 위해 종자개량 재배 가공 및 저장수입농산물물감사 부산물이용 등 5대 첨단과학기술을 집중 개발하는 한편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신소재 정밀화학분야 등 4백38개 원천기술개발 과제에 3천2백2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보고했다.